김영욱 "내 유니폼 더러워질수록 빛난다"

**제주 아길라르·이창민 부상
남 감독, 대체자 김영욱 선정
패스 줄이고 '기습 오버래핑'
수비 시 강력한 압박플레이
절묘 크로스로 헤더골 도와
김 "신뢰가 날 더 뛰게 한다"**

지난 26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1995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제주의 중앙미드필더 김영욱(사진 왼쪽)이 강윤성과 함께 압박수비를 전개하고 있다. 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

"내 유니폼이 더러워질수록 팀이 빛난다."

제주유나이티드의 '믿을맨' 김영욱(29)의 헌신이 위기에 빛을 발했다.

제주는 K리그2 우승 후보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개막 후 3라운드까지 1무 2패의 부진에 빠졌다. 부상 및 퇴장 등 시즌 초반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며 쉽사리 승수를 쌓지 못한 것이다. 지난 23일 대전하나시티즌과의 맞대결에서는 공민현과 주민규의 연속골로 승기를 잡았지만 페널티킥 허용과 주장 이창민의 퇴장으로 내리 실점을 하며 분루를 삼켜야 했다.

물음표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제주는 가장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다. 올 시즌 전승 중이며, 불편한 관계의 부천FC1995와 사상 첫 맞대결을 펼치게 된 것이다. 발렌티노스, 아길라르(이상 부상), 이창민(퇴장 징계)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결장하는 가운데 부천이 개막 후 3연승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어 위기감이 엄습했다. 특히 주장 이창민이 빠진 중원 조합은 가장 큰 고민이었다.

남기일 감독의 선택은 김영욱이었다.

지난 26일 부천 원정에서 김영욱은 4-4-2 포메이션의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부천의 내려 앉은 수비벽을 뒤흔들기 위해서는 공간 돌파가 필수적이었는데 김영욱은 불필요한 패스는 줄이고 기습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공격의 활로를 개척했다. 특히 몸을 아끼지 않는 강력한 압박 플레이로 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전매특허인 정교한 오른발킥은 막판 승부처에서 빛났다. 후반 추가시간 1분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 문전을 향해 절묘한 궤적의 크로스를 연결했고, 주민규의 헤더 결승골을 견인했다.

김영욱은 "부천 원정을 앞두고 팀이 2연패를 당하면서 부담감이 커졌다. 하지만 감독님이 오히려 더욱 편하게 경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며 "변하지 않은 신뢰가 이날 경기 나를 한걸음 더 뛰게 만든 것 같다. 앞으로 더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야구장 못가나

KBO, 정부 방침 따르기로
'관중 입장' 6월 14일 후로

제한적인 관중 입장을 준비하던 한국프로야구가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에 '무관중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연수원과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극장 등 수도권 내 모든 공공·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6월 14일까지 중단하는 등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KBO도 정부 방침에 따라, 관중 입장 허용을 6월 14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국프로야구는 5월 5일 무관중으로 개막했다.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관중 입장'의 희망을 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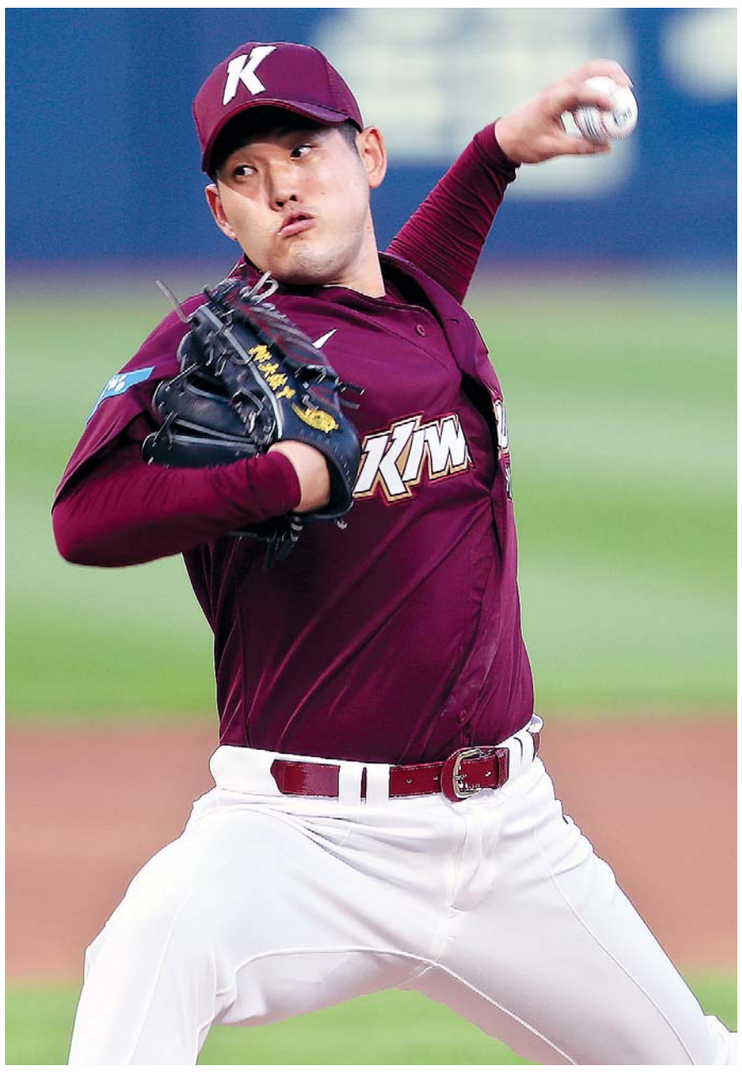
KBO와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에 '관중석 거리 두기가 가능한 수준'의 관중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었다. 관람석의 30% 수준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고, 경기장 내 '안전한 거리 확보'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며 '방역 강화'를 강조했고, KBO도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한국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2020년, 대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프로야구리그를 개막했다. ESPN을 통해 KBO리그가 미국 전역에 중계되면서 현지 언론이 꾸준히 한국 야구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하지만 야구장에서 직접 야구를 관람하고 싶은 팬들의 갈증은 점점 심해진다. 무관중 기간이 길어질수록 프로야구단의 경제적인 손해도 커진다.

KBO와 각 구단은 조심스럽게 '제한적인 관중 입장'을 준비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위협에 야구장 팬 출입문을 다시 닫았다. 연합뉴스



"브리검 아프지 마… 내가 있잖아" 28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NC 다이노스 경기에서 1회말 키움 선발투수 정대현이 투구하고 있다. 이날 경기 선발 예정이었던 브리검이 지난 27일 팔꿈치 통증을 호소해 좌완 정대현이 선발로 나섰다. 연합뉴스

KLPGA 5년차 이소영 2018년 영광 재현?

우승자 박현경 '발등의 불'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5번째 시즌을 맞은 이소영(23·사진)은 지난 2018년 3승을 올려 다승왕을 차지했다.

당시 경기도 이천시 사우스스프링스 골프클럽(파72)에서 치른 올포유 챔피언십에서 이소영은 4라운드 내내 60대 타수를 적어내며 시즌 3번째 우승을 따냈다.

나흘 내내 60대 타수를 친 선수는 4타차 2위 박주영(30)과 함께 단 두 명이었다.

이소영은 28일 사우스스프링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E1 채리티 오픈 1라운드에서 버디 7개를 뽑아내며 7언더파 65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이정은(24), 최민경(27), 하민송(24), 장은수(22), 유해란(19) 등 2위 그룹을 2타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에 나선 이소영은 대회는 다르지만 같은 코스에서 2년 만에 정상 복귀를 노리게 됐다.

2타차 공동 2위 그룹 5명 말고도 임희정(20), 장하나(28), 김해림(31) 등이 4언더파 68타를 쳐 이소영에 3타 뒤진 공동 7위에 포진, 뜨거운 우승 경쟁을 예고했다.

KLPGA 챔피언십 우승자 박현경(20)은 5오버파 77타로 120위 밖으로 밀리면서 발등의 불이 됐다. 연합뉴스

경마 역사상 처음 '예약제' 운영

임시휴장 6월 10일까지 연장

경마 역사상 처음으로 '예약제' 시스템이 운영된다.

28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부터 긴급 임시휴장이 실시된 서울, 부산, 제주 등 3개 경마장이 운영을 재개할 경우 사전 예약된 고객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사전 예약 규모는 좌석 정원의 20%이며, 이들은 경마장에서도 좌석을 몇칸씩 건너뛴 상태로 착석해야 한다.

예약 방식은 경마 전날에 한국마사회 휴대전화 어플인 '마이카드'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한국 경마 역사에서 예약제가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마의 역사를 보면 1922년 4월 5일 발족한 조선경마구락부가 1945년 11월 7일 한국마사회로 이름을 변경, 과천경마장의 전신인 신설동경마장이 개장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88년 서울올림픽 승마경기장으로 건설된 과천경마장이 서울경마공원으로 개조돼 1989년 9월 1일 첫 경주가 시행됐다. 제주에서는 1990년 제주경마공원이 개장, 조랑말 경주가 처음으로 진행됐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임시휴장 기간을 6월 10일까지로 연장키로 28일 결정했다"며 "현재 사업장 방역 및 시설 점검을 매일 진행하고 있으며, 경마 재개 시기는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은범기자